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4. 1. 23.(화), 10:00
2. 장소 :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8	박영미*, 임동훈**, 김재욱, 정연화, 박서림, 전현주, 이명경, 오숙환	고민희(간사)
불참인원	4	김병선, 김세완, 김정권, 임진	

* 의장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제3호의안: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 심의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총학생회장과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제8기 대학평의원회 학생 평의원 2명(박서림, 정영주)이 새롭게 위촉되었음을 안내하다.
- 나. 의장은 김병선, 김세완, 김정권, 임진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전체 평의원 12명 중 8명 참석으로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나.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다.

6. 안건 자문 및 논의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1) 의장은 제1호의안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개요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요청에 따라 각 구성단위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대학평의원

회 추천 위원 3인을 선출하여야 함을 설명하다.

- (3) 의장은 개방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물으며 추천 위원을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전원이 추천 후보가 되어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다.
- (4) 박서림 평의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법인과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임에도 법인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본교의 현황에 대해 질문하다.
- (5) 임동훈 평의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상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으나 대학평의원회의 추천 과정은 이와 무관하다고 설명하다.
- (6) 의장은 지난 추천감사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추천 위원들이 추천감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나 최종 법인 추천 위원이 추천한 분이 선임되었음을 추가 설명하다.
- (7) 의장은 2가지 안(추천하여 투표 또는 전원이 추천 후보가 되어 투표)에 대해 평의원들의 거수를 요청하고 거수 결과 후보를 추천하여 추천된 후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8) 의장은 후보 추천을 요청하다.
- (9) 오숙환 평의원이 박영미 평의원(의장)과 임동훈 평의원(부의장)을 추천하다.
- (10) 의장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위원으로 3명의 인원이 필요하므로 후보자 역시 3명이 상은 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추가 추천을 요청하다.
- (11) 박서림 평의원은 첫 회의 참석으로 평의원 추천이 어렵고 또한 추천된 평의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하다.
- (12) 의장은 모든 평의원들의 소개를 요청하고 각 평의원들은 자신을 소개하다.
- (13) 박서림 평의원은 오숙환 평의원에게 2명의 평의원을 추천한 이유를 질문하다.
- (14) 오숙환 평의원은 박영미 평의원과 임동훈 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맡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을 임기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두 평의원이 추천 위원으로 합당하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하다.
- (15) 의장은 추가 추천을 요청하다.
- (16) 정연화 평의원은 대학발전평의원 두 분 중 한 분이 참여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며 오늘 참석한 오숙환 평의원을 추천하다.
- (17) 박서림 평의원은 동창 평의원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을 이전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통해 보았고 이런 기준에서 이명경 동창평의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하다.
- (18) 의장은 4명의 평의원(박영미, 임동훈, 오숙환, 이명경)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

로 설명하고 개표위원을 추천받다.

- (19) 오숙환 평의원이 학생 평의원을 개표 위원으로 추천하고 평의원들이 동의하다.
- (20) 간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선거 방법은 전체 투표 혹은 추천 투표 중 재적 의원 수 과반의 찬성으로 추천 후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투표 선발 방식은 단순 다수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명의 의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안내하다.
- (21) 참석 평의원들은 투표를 진행하고 박서림 평의원이 개표하다.
- (22) 의장은 박영미 평의원 8표, 오숙환 평의원 7표, 이명경 평의원 3표, 임동훈 평의원 6표로 개표되었음을 알리고 박영미 평의원, 오숙환 평의원, 임동훈 평의원을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을 선포하다.

□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이번 학칙 개정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2024학년도부터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국제일본어교육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임을 알리고 신설 당시 3년 후 재평가를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이후 평가를 거쳐 폐지가 확정되었음을 설명하다. 두 번째는 2024학년도 후기 편제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온라인 학위과정을 20명 증원하는 것과 바이오융합규제과학전공의 온라인학위과정 전환에 관한 것,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간의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다.
- (3) 임동훈 평의원은 국제일본어교육학과 폐지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4) 간사는 학생 총원율, 개설 과목당 학생 수, 학생 등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5) 임동훈 평의원은 학과가 신설되고 폐지되는 기준에 대해 질문하다.
- (6) 기획팀장은 대부분의 학과는 단과대학 수요조사를 통해 신설 및 폐지가 결정되며, 수요조사를 통해 안건으로 올라오면 편제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신설 및 폐지를 결정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국제일본어교육학과는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신설을 하였으나 당시 조건부로 신설 승인하였다고 말하다. 보통은 신설 또는 미신설로 결정이 되나 해당 학과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들이 많아 3년 후 재평가를 조건으로 신설 승인하였음을 설명하다. 그리고 3년 후 평가 시 편제조정위원회에서 1년 유보 결정을 내렸고 1년 뒤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나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를 결정하

였다고 말한다.

- (7) 임동훈 평의원은 신설 연도를 질문하다.
- (8) 기획팀장은 2020학년도에 신설되었음을 답하다.
- (9) 임동훈 평의원은 학과의 신설 및 폐지는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폐지에 관한 평가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어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10) 기획팀장은 자료를 보완하여 보고하겠다고 답하다.
- (11) 박서림 평의원은 현재 재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하다.
- (12) 기획팀장은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과가 유지가 되며,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설명하다.
- (13) 의장은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일본어교육학과를 운영하는 측에서도 동의하였는지 질문하다.
- (14) 기획팀장은 편제조정위원회에 배석하여 학과의 의사를 설명하였고 결과를 수용하였음을 알리다.
- (15) 임동훈 평의원은 임상헬스케어학과 아래 임상영양학전공 한 개만 있는 것에 대해 이런 경우가 다른 대학원에도 있는지 문의하다.
- (16) 간사는 이번 학칙 개정에서는 온라인학위과정 전환을 반영하고 학과 안에 단일 전공이 있는 경우 추후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음을 설명하다.
- (17) 임동훈 평의원은 학과 내 전공이 하나인 경우 굳이 전공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불필요한 구조가 아닌지 질문하다.
- (18) 기획팀장은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위명에 괄호를 하고 세부전공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라고 설명하다. 신학대학원의 경우도 신학과 하나이며 괄호로 신학을 표기하고 있듯 한 학과라도 세부전공은 반드시 표기하고 있음을 추가 설명하다.
- (19) 김재욱 평의원은 정원이 줄어드는 학과가 공교롭게도 인문·사회계열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교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계열이 감소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다. 또 이렇게 해야 한다면 향후 인문·사회계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 질문하다.
- (20) 기획팀장은 정원조정은 각 대학원의 충원율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결과임을 설명하고 충원율 등에 따라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은 매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다. 그리고 이번 정원조정은 충원율이 낮은 대학원들만 조정된 결과라고 답하다.
- (21) 의장은 경영전문대학원과 정책과학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모두 정원조정에 동의

하였는지를 질문하다.

(22) 기획팀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각 대학원의 확인서도 받았다고 말하다.

(23)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 후 심의를 종료하다.

□ 제3호의안: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 심의

(1) 의장은 제3호의안으로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박서림 평의원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2) 박서림 평의원은 요구안은 총 3가지이며 첫 번째는 대학평의회 구조 개선 관련 내용으로 전체 평의원 수 확대와 더불어 각 위원 구성단위별로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단과대학 신설 시 대학평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전임교원, 공간)이 있었고 당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학교 측이 답변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설 이후 학생 의견을 반영해 대책 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요구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세 번째는 EWC 개발과 헬렌관 재건축 계획과 관련하여 학생 의견 수렴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설명하다.

(3) 박서림 평의원은 대학평의회가 심의 및 자문 기구이지만 학생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의체 중 하나이고 실제 대학의 장기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분들께서 모여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평의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면 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음을 부연 설명하다. 특히 첫 번째 안건의 경우 2020년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안건이며 대학평의회에서도 평의원 수 확대와 관련한 논의들이 나왔고, 이전 총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구조 개선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의원 수 관련 안건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 오늘 주요하게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다.

(4) 의장은 첫 번째 안건에 대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묻다.

(5) 박서림 평의원은 단순히 학생 위원 수 확대만이 아니라 전체 평의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학평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며, 대학평의회 평의원을 16인으로 확대하고 직원 및 학생 평의원을 교수 평의원과 동일한 수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6) 임동훈 평의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에 2명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지 박서림 평의원에게 질문하다.

(7) 학부와 대학원은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학생 위원이 1명으로 구성된 것과 같고 타대학의 경우 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8) 임동훈 평의원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예시를 들며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했을 시 본교의 구조가 학생 평의원 비율이 더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
- (9) 박서림 평의원은 타대학의 학생 평의원의 수가 최대 2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본교 역시 꼭 2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말한다. 학생 평의원이 2명이지만 학부와 대학원이 분리 운영되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2020학년도 이전 대학평의원회에서 동일안 구성으로 안건 상정을 하였고 당시 동창 평의원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고 말한다. 대학발전에 있어 민주적으로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평의원 수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건을 상정한 것임을 설명한다.
- (10) 임동훈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의결 기구라면 평의원의 수가 중요하겠지만 심의·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은 학생회장을 통해 수렴되어 대학평의원회 회의 시 대변될 수 있음을 말한다. 2번과 3번 요구안의 경우 학생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학생회일 것이고 학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 (11) 박서림 평의원은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임에 동의하지만 인공지능대학과 EWC 개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말한다. 인공지능대학이 신설된 지 2년이 되었는데 공과대학이 개편되면서 또 변화를 겪고 있고 인공지능대학의 정체성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린다. 대학 신설 당시 학생들의 의견이 잘 수용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학생들의 불편이 적었을 것이라 말하며, 대학평의원회에서 단순히 학칙 개정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 대학의 신설 및 학과 이전 등이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며 두 번째 요구안을 안건 상정한 것임을 설명한다.
- (12) 임동훈 평의원은 학생 의견 수렴의 주체는 학생회임을 재차 강조한다.
- (13) 박서림 평의원은 학생회의 일임에는 동의하나 학교 측에서 정보를 공유해 주어야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대학이 신설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점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학생 의견 수렴은 학생회의 역할임과 동시에 학교 차원에서도 노력해서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 (14) 박서림 평의원은 총장과의 면담에서 편제 개편시 학생처나 다양한 회의체 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총장님 말씀을 전하며 그 중 하나가 대학평의원회라고 생각한다 말한다.
- (15) 오숙환 평의원은 2번, 3번 요구안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계획한 내용을 검증하고 자문하는 기구라고 말한다.

- (16) 박서림 평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각 부처와 논의하거나 요구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을 알리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 기구이지만 학생들이 제안한 안건들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곳이라 말한다.
- (17) 오숙환 평의원은 학생의 의견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으나 현재 안건은 학생 의견 반영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평의원회의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 (18) 박서림 평의원은 2번과 3번 요구안은 학생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며 그런 차원에서 1번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평의원 수의 확대가 어렵다면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대학이나 재건축 관련한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회의체 참관하는 것을 같이 논의하여 달라고 말한다.
- (19) 이명경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각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 (20)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는 심의 자문기구이고 규정에 보면 심의와 자문의 내용이 나뉘어 있다고 설명하며 본교가 민주적으로 여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대학평의원회라고 말한다. 그동안 대학발전계획으로 재건축이나 학과 신설 등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 되었고 각 자의 입장(교수, 학교 발전위원, 명예 교수, 직원)에서 최선을 다해 객관적으로 심의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의 다른 기구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민주적일 수도 있음을 설명하며,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학교의 기구 안에서 잘 전달해 달라고 말한다.
- (21) 임동훈 평의원은 학생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제시해 주면 평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시각에서 보는 문제점들이 공유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학교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말한다.
- (22) 임동훈 평의원은 박서림 평의원이 언급한 참관과 관련하여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참관을 요청하는 것은 학생 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다.
- (23) 박서림 평의원은 인공지능대학 개편과 재건축 관련 사항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참관을 통해 논의 과정들을 보며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고 대학 및 학과 신설과 관련한 학칙 개정 관련한 사안에서는 학생회장이 학부 대표로 의견을 수렴해 오겠지만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단과대학 대표가 참관할 시 또 다른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임을 설명하다.
- (24) 박서림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

안을 요청한 것은 대학평의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말한다.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요구안인 대학평의원회 구조 개선을 요청하였음을 설명하다. 그리고 회의체에서 학생 위원의 수는 의견을 개진하고 심의할 때 차이가 크다고 말하며 대학평의원회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다.

- (25) 의장은 대학평의원회가 본부에서 수립된 계획과 관련하여 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본부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묵인하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하며, 평의원들이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학교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대학평의원회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다. 의장은 학생 평의원의 의견이 구성원 수의 문제로 묵살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다면 심도 있게 그 부분을 논의하여야 하지만 여러 평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아 현재 그러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한다.
- (26) 박서림 평의원은 다른 구성단위 평의원들에게 대학평의원회 구조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구하다.
- (27) 김재욱 평의원은 처음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이 되어 물리적 숫자만 보고 학생 평의원과 같은 우려를 하였으나, 1년 반 정도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고 또 이전 회의록들을 보면서 한 명 한 명이 각자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협의체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단순히 물리적 숫자를 늘리는 것이 대학평의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지는 의구심을 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여 안건 상정에는 동의 한 바 있다고 말한다.
- (28) 의장은 안건에 대한 동의 거수를 진행하고 2명의 평의원이 동의하고 6명의 평의원이 동의하지 않아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나. 기타사항

- (1) 의장은 간사의 임기가 2023년 1월 31일로 종료됨을 안내하고 임기 동안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 인사를 전하다.
- (2) 기획팀장은 당연직인 교수평의원들의 임기가 2월 말에 종료되어 변경될 예정임을 알리다.
- (3) 의장은 본인과 임동훈 평의원의 임기가 2월 종료됨을 알리고 대학평의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평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인사를 전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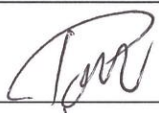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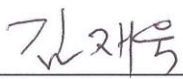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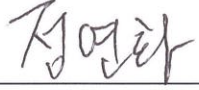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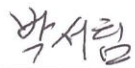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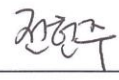


2024년 1월 23일

의 장 박 영 미

 (인)

대학평의원회 2024년 제1차 회의

일시	2024. 1. 23.(화) 10:00	장소	본관 대회의실
안건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2.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3.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 심의		

구분	성명	서명
교수 평의원	박영미	
교수 평의원	임동훈	
교수 평의원	김세완	
교수 평의원	김병선	
직원 평의원	김재욱	
직원 평의원	정연화	
학생 평의원	박서림	
학생 평의원	전현주	
동창 평의원	이명경	
동창 평의원	임진	
대학발전 평의원	오숙환	
대학발전 평의원	김정권	